

# 85年度 精油産業의 課題와 換差損對策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

로 알더치셀의 P.H.박센빌會長은 현재 石油産業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를 기술적·상업적·사회적 도전의 3가지 측면에서 요약, 분석한 바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精油産業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표현되는 「상업적 도전」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상업적 도전이라고 하면, 석유수요가 감퇴하는 환경 변화속에서 어떻게 精油産業이 수익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과 活力을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정유산업은 과거 수익성, 안정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一般通念과는 달리 실제로 他산업 평균수준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특히 79년의 제 2차 석유위기 이후 수요감퇴와 파잉시설로 가동률의 저하와 수익성의 악화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의 상대적 취약으로 건전한 투자여건의 조성이 어렵게 되어 왔다.

국내 정유산업은 대체로 6조원 규모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6조원 산업은 따지고 보면, 별로 실속이 없는 장사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이윤은 고사하고, 원가보상을 받기에도 많은 눈치를 보고, 논쟁을 거쳐야 한다.

오늘의 정유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따지고 보면, 6조원 산업이 왜 허덕이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우선 정유산업이 달러貨 변동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換差損에 대한 보상이 운명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율이 1% 오르면 국내油價에는 약 1.3%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換率은 4.0%가 올랐다. 연평균 환율로 따져서는 3.8%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정유업체는 무려 1천여억원의 추가부담을 안게 되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지만, 소비자들은 쉽게 납득하려 들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현행 油價구조의 특징을 보면 原油代 관련비용이 95.7%나 차지하며, 나머지 3.9%는 原油도입금융비로 되어 있다. 원유도입관련비는 대외결제일의 달러貨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납부되므로 국내 油價구조중 95.7%는 환율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원가의 95.7%는 석유업자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비용으로 환율 변동폭의 가격반영 이외에 다른 부분의 흡수는 그 폭이 좁아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主要國의 金利展望

(單位：年利，%)

		1984		1985			
		III	IV	I	II	III	IV
美國	公 定 割引率	9.00	9.00	9.27	9.50	9.43	9.00
	프라이 레이트	12.99	12.28	12.00	12.00	11.93	11.50
	聯邦資 金金利	11.39	10.25	10.52	10.12	9.77	9.77
	유로달 러金利	11.68	11.51	12.33	12.71	12.52	12.17
日本	公 定 割引率	5.00	5.00	6.25	6.25	6.25	7.00
	平均貸 出金利	6.78	6.77	7.16	7.51	7.62	7.91
西獨	公 定 割引率	4.50	4.60	5.00	5.00	5.00	4.70
	콜머니 레이트	5.50	5.50	5.80	5.80	5.80	5.40
프랑 스	公 定 割引率	10.70	10.40	10.70	10.50	10.30	10.10
	콜머니 레이트	11.20	10.90	10.90	10.60	10.40	10.10
英國	公 定 割引率	12.10	11.70	10.50	10.30	9.40	8.90
	콜머니 레이트	13.00	11.20	9.80	9.80	8.80	8.50

(資料) DRI, Review of the U. S. Economy, Nov. 1984.

DRI, European Review, Nov. 1984.

DRI, Japanese Review, Fall. 1984.

을 기록할 것이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달러換率은 지난 한해동안 4%가 상승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對美달러 환율은 이미 8백30원대를 넘어섰다. 바로 이 순간에도 정유업체의 환차손은 자꾸 늘어나서 추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 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22일 나프타가격을 7.1% 인하하면서 환율 및 국제금리상승에 따른 당면유가 조정문제는 금년도 상반기로 미루었다. 정유업체로

또 원유도입금융비용도 자금의 규모로 보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原油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매일 약 1백2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자금의 확보에는 產油國에서 원유선적, 국내도착, 정유사탱크 입고까지 약 30일, 원유제고기간 약 20일, 제품제고 약 20일, 판매후 대금회수기간 약 30일등 모두 합하여 약 1백일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매일 1백 20억원씩 1백일 합계 1조2 천억원을 산유국에 지불해야 하는 바, 이를 모두 국내금융으로 충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약 23억달러에 달하는 外貨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차입 형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유비 이외에도 지불해야 할 외화채무와 그 이자는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WEFA(와튼계량경제연구소) 등 전문경제예측기관들은 환율상승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수그러져 연말에는 지난 해 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달러가치가 금년 5~6 월경에 戰後 최고수준

主要通貨의 換率展望

(單位：달러當 各通貨)

	通貨	1985			
		I	II	III	IV
WEFA	¥	233.9	225.8	217.5	209.6
	DM	2.9827	2.9424	2.9084	2.8859
	F·Fr	9.2559	9.1835	9.0898	9.0120
	S·Fr	2.4610	2.3512	2.2993	2.2605
	Lit	1,937	1,946	1,959	1,981
	C·\$	1.3154	1.3169	1.3167	1.3155
	£ <sup>1)</sup>	1.2648	1.3139	1.3638	1.4119
DRI	¥	214.9	207.7	203.0	198.5
	DM	3.050	2.868	2.765	2.627
	F·Fr	9.499	9.119	8.890	8.575
	S·Fr	2.506	2.357	2.281	2.162
	Lit	1,943.6	1,872.3	1,840.2	1,802.9
	C·\$	1.328	1.333	1.321	1.311
	£ <sup>1)</sup>	1.256	1.311	1.340	1.392

註：1) 파운드當 달러.

(資料) WEFA, Wharton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Nov. 1984.

DRI, European Review, Nov. 1984.

□ 石油時評 □

서는 새해에 미결사항으로 이월된 가장 큰 문제가 換差損対策이 아닐 수 없다.

精油産業은 장치산업으로 해마다 상당액의 재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계속적인 경영수지의 악화는 재투자를 어렵게 함으로써 장기석유류 안정공급을 저해하고 있다. 또 低硫黃유류의 공급을 확대하고 유류수요의 경질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해방지시설의 확충과 重質油分解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바, 이러한 시설투자는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현재와 같은 경영수지하에서는 투자재원의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익산업인 정유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융통성을 보일 때가 온 것 같다. 유가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때에 반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환율상승등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의 누적을 해소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이 기대되고 있다.

어느 산업이나 걱정이운은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우기 국가기간산업에 최소 자본이익률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은 산업정책상으로 우려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

□ 消費国短信 □

# 日本, 石油情報 共同運營시스템 推進

日本 通産省은 日本 석유회사와 무역회사들이 수집, 활용하고 있는 關聯情報를 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通産省의 計劃日程에 따르면 이 制度는 4월부터 시작되는 85회계연도에 개발·착수되어 86년 가을부터는 본격 가동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運營目標은, 모든 석유거래회사들의 석유거래조건을 電算人力시킴으로써 國家單位 석유수급상황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석유거래조건에 관한 종합적인 狀況分析을 실시, 이를 기초로 去來上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으로서, 이 업무는 通産省 傘下 資源에 너지칭이 주관하게 된다.

이와같은 通産省과 日本企業間의 정보 풀·시스템의 구축은 두말할 나위없이 國益의 극대화라는 大前提下에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日本과 같이 國家의 개입 또는 통제보다는 企業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企業競爭原則이 중요시되는 風土에서 이와같은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느 면으로 부러운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보아 그동안 수년간 추진되어 왔던 「元賣企業集約化」事業이 일단 결실을 보아 지난 연말 7그룹 12社 體制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이 制度가 실시된다는 점은 앞으로

運用方向을 어느 정도 짐치게 해주고 있기도 하다.

元賣企業集約化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재 日本의 석유회사들이 취해야 될 다음 조치는 企業間의 協業關係의 강화라 하겠다. 즉, 原油의 공동구입이라던가 석유제품의 상호유통, 貯油所의 공동이용, 去來條件의 통일 등이 상호 업무적 紐帶를 강화해야 될 대상들이며, 바로 이러한 업무적 提携에 선행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情報活用의 공동화이다.

이와 같은 國內的 要因 이외에 국제석유시장 정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이 制度 도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國際石油供給이 완화된 상황에서 과거 石油供給源 확보를 위한 기업간의 경쟁적 進出보다는 國家單位의 물량조정에 따라 이익극대화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計算이 가능한 것이다. 비단 日本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겠지만 日本의 석유전문가들은 최근, 國際石油市場의 제여건변화가 1, 2차 에너지 쇼크 이후 형성된 새로운 과도기적 환경으로부터 이제 조정기간을 서서히 넘어서 새로운 환경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여전에서 日本의 國內 석유산업정책의 새 진로를 찾는데 專念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